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환경 변화와 경영 사례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황현정 선임연구원(hhj03@kdb.co.kr)

- I. 지속가능경영의 의미와 필요성
- II.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환경 변화
- III. 지속가능경영 사례 - BNP Paribas
- IV. 지속가능경영 사례 - EIB
- V. 시사점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사회·경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 목표 이행 요구 확대, ESG 관련 규제 및 공시 강화로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환경은 최근 들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선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던 ESG 공시가 '24~'25년 주요국을 중심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은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해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금융 포트폴리오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리적·이행 리스크의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기업·산업의 저탄소 및 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사례로 글로벌 대형 금융그룹인 BNP Paribas와 EU의 정책금융기관인 EIB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양 기관 모두 Scope 1~3 기준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하고 있으며, 고탄소 배출 산업 또는 프로젝트의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다.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통합·관리 중이며, 그룹의 종합적인 전략 아래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변화하는 지속가능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산업·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과정에서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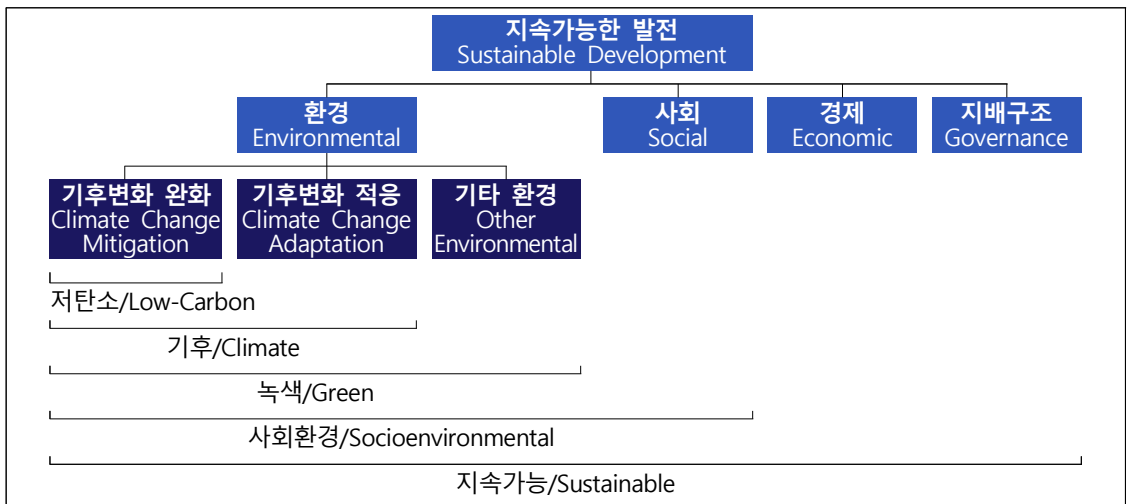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지속가능경영의 의미와 필요성

-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사회·경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방식
 -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
 -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환경(E)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확장
 - 사회(S)·지배구조(G)는 환경 외 사회적 기여, 투명·윤리경영, 정보보호, 고객만족, 인권, 다양성 등 광범위한 내용을 모두 포괄
 -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은 기업·프로젝트의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ESG 요소도 고려하는 지속가능금융(ESG금융 및 투자)이 핵심

<그림 1>

지속가능금융의 개념



자료 : UNEP(2016),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87),“Our Common Future”

□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목표 이행 요구 확대, ESG 관련 규제 및 공시 강화로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

- '15년 UN총회에서는 환경·사회·경제 전반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 만장일치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²⁾를 결의
 - 국제기구,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행 요구를 확대
- '20년 교토의정서('97년 채택, '05년 발효)가 만료됨에 따라 '21년부터는 '15년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여 체결한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약이 발효
 - 파리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목표³⁾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당사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NDC)⁴⁾의 설정 및 이행을 요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행동 요구와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ESG 관련 공시기준도 강화되고 있음
 -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GFANZ)⁵⁾, 적도원칙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기업 및 금융기관 앞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요구
 -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EU 탄소노미, EU 공급망 실사 등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관련 규제 확대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미 증권거래소(SEC),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⁶⁾ 주도로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공시의무화를 추진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① 빈곤퇴치, ② 기아종식, ③ 건강과 웰빙, ④ 양질의 교육, ⑤ 성평등, ⑥ 깨끗한 물과 위생, ⑦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⑨ 산업·혁신·사회기반시설, ⑩ 불평등 감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⑫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생태계 보존, ⑮ 육상생태계 보호, ⑯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⑰ 지구촌 협력

3)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까지 제한하도록 노력

4)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5) 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Carbon Disclosure Project,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6)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II.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환경 변화

-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던 ESG 공시가 주요국을 중심으로 의무화될 예정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3.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제시했으며, '25년부터 '24년 회계연도 자료에 대한 공시가 이뤄질 예정
 - 첫 번째 ESG 공시 기준서로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S2 '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
 - 국가별 시행 시기는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Scope 3⁸⁾ 및 금융기관의 금융 배출 공시는 대해서는 1년을 유예
 - ISSB의 공시 기준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 사항을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IFRS는 '23.7월 TCFD가 담당했던 기후공시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24년부터 이관받기로 했다고 발표⁹⁾

〈표 1〉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주요 내용

공시기준 명칭	·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규정(TCFD 권고안 통합)
시행일	· '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주요 경과규정	· IFRS S1-S2 기준 적용 첫해, 다음 경과규정 제공 ①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는 미공시 허용 ②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가 아닌,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발표 시점에 공시 허용 ③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대한 미공시 허용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2023)

7)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1.11월 출범

8) Scope 1(직접배출량) : 기업의 핵심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간접배출량) : 기업이 구입한 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기타 간접배출량) :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9) IFRS(2023), "IFRS Foundation welcomes culmination of TCFD work and transfer of TCFD monitoring responsibilities to ISSB from 2024"

- 유럽에서는 '25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기업의 ESG 공시가 순차적으로 의무화될 예정
 -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의 개정안 성격인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25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¹⁰⁾
 - EU는 CSRD 보고서 적용되는 공시 기준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¹¹⁾을 '23.7월말 채택

〈표 2〉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

구분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제정	'14.10월	'22.11월
시행	'17년 회계연도	'24년 ('25년부터 보고서 발간)
적용대상	직원 500명 이상, 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기업	모든 EU 대기업 및 상장기업 ^{주)} (상장 소기업 제외)

주 : '23.7월말 채택된 수정안에서는 직원수 750명 미만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이슈 중 공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자료 : 윤재숙(2023), 금융위원회 외(2023)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4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공시 의무 적용 계획
 - '22.3월 기후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하고, Regulation S-K¹²⁾의 하위항목을 신설하여 기후공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표 3〉 SEC 기후공시 의무화 초안 주요 내용

공시대상	· 모든 상장기업(미국에 상장된 해외기업 포함)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시기	·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Scope 3 면책조항 도입
제 3자 검증	· Scope 1·2 공시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을 의무화

자료 : 금융위원회 외(2023)

10) '25년부터 NFRD 대상 기업, '26년부터 그 외 대형기업, '27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용

11)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12) 증권법('33) 및 증권거래법('34) 등을 근거로 한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SEC 규정

-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에서 '25년 이후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했으며, '23.1월 회계기준원 내에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¹³⁾
 - 현재 자율 공시에서 '25년부터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공시 의무화 확대
 - 다만 대상기업, 공시기준, 공시시기, 제3자 인증 등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¹⁴⁾

□ 금융기관들은 기후관련 공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의 분석 및 평가를 실시

- TCFD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권고안에 따라 Scope 1·2·3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공개하고 자산·산업별 Scope 3 기준 금융배출량·금융집약도를 별도로 측정·공개
 - Scope 3 배출량은 제품·서비스의 구매, 운송·유통, 판매제품의 가공·사용·폐기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산출되며,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Scope 3 산출 외에 대출·투자 포트폴리오의 금융배출량 또는 금융집약도 산출이 요구됨
 - 금융배출량 또는 금융집약도는 산업·기업의 배출량 또는 활동량 기준 배출량에 대하여 전체 투융자 규모 대비 해당 금융기관의 투융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표 4> Scope 3 기준 금융배출량과 금융집약도 산식 예시

금융배출량	금융배출량 = (산업·기업 배출량) × (금융기관 투·융자) / (전체 투·융자)
금융집약도	금융집약도 = [(산업·기업 배출량) / 활동량 ^{주)}] × (금융기관 투·융자) / (전체 투·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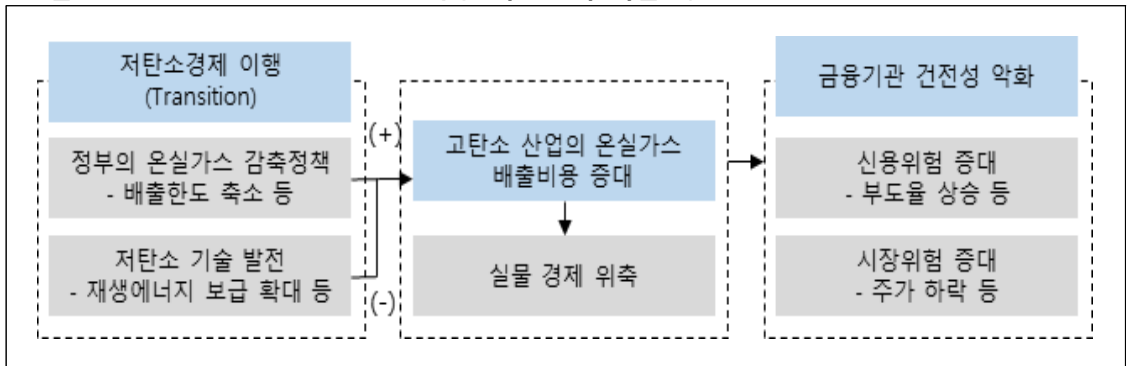
주 : 활동량은 매출액 또는 산업·기업의 특성에 맞는 활동기준(철강은 생산량, 발전은 생산전력) 적용
 자료 : PCAF(2022)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2.12.15),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 "

14) 이상호(2023),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감독기관의 기후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요구, TCFD 공시¹⁵⁾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를 분석
 - 물리적 리스크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로 사업장 중단, 시설 손상 등에 따른 운영 및 자본 비용 증가, 담보취득 위험자산의 손상 또는 보험료 증가 등으로 금융기관에 영향
 - 이행 리스크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고탄소 배출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용 증대, 재정 악화 등으로 관련 금융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손실위험 확대 및 건전성 악화 등을 야기

〈그림 2〉 이행 리스크의 파급 경로



자료 : 한국은행(2021),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 미 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¹⁶⁾
 - (FRB) '22.12월 대형은행¹⁷⁾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원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3.1월 미국 6대 대형은행¹⁸⁾이 참여하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시범사업 개시

15) TCFD 지지를 선언한 기업 및 금융기관은 TCFD 기준에 따라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음

16) 심수연(2023), "기후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 방향", 자본시장 포커스 2023-05호, 자본시장연구원

17)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은행

18) Bank of America, Citigroup, Goldman Sachs, JPMorgan Chase, Morgan Stanley, Wells Fargo

- (ECB) '22.1월 ECB의 감독을 받는 104개 개별 은행에 대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24년 말까지 EU 은행들이 기후변화 관련 대응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
- (BOE) '21.6월 대형 은행 및 보험사 대상 첫 번째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 (한국은행) '21.12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실물부문 영향과 은행의 건전성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행 리스크에 따른 고탄소, 중·저탄소 산업의 연평균 부도율과 국내은행 BIS 비율 변화를 산출

〈표 5〉 이행 리스크에 따른 산업별¹⁾ 부도율, 국내은행 BIS 비율 변화²⁾

구분		2°C 시나리오	1.5°C 시나리오
부도율	고탄소산업	↑ 0.34%p	↑ 0.63%p
	중·저탄소산업	↑ 0.04%p	↑ 0.01%p
국내은행 BIS 비율		↓ 0.09%p	↓ 0.19%p

주 : 1) 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45개 산업에 대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가가치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고탄소 산업을 분류

2) 기준연도('20년) 이후 '50년까지 연평균 변화

자료 : 한국은행(2021),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 기업·산업의 저탄소 및 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 금융 및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 중

-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속가능금융 활동은 ESG 채권 발행·주선·투자를 통한 산업·기업의 친환경 투자 및 저탄소 전환 지원을 꼽을 수 있음
 - '07년 유럽투자은행(EIB)이 세계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한 이후 각 금융기관은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주선 등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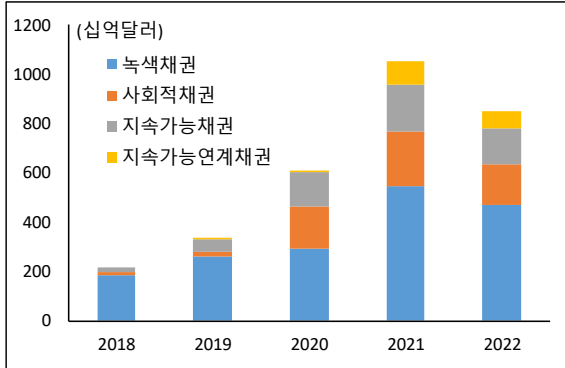
〈표 6〉 ESG 관련 채권의 종류

구분	개요
녹색채권 (Green Bond)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용 채권
사회적채권 (Social Bond)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투자용 채권
지속가능채권 (Sustainability Bond)	환경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투자용 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자가 사전에 정의한 ESG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 및 구조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는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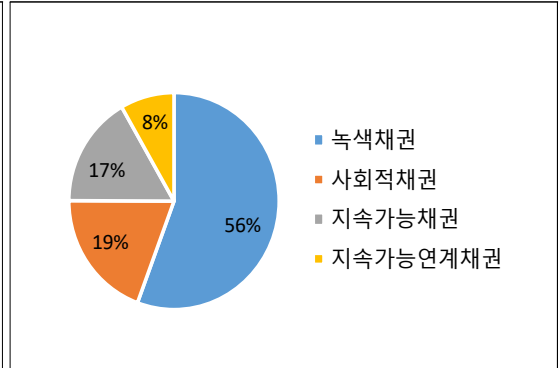
자료 : 산업은행 정리

- 이에 따라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18년 215십억 달러에서 '21년 1,057십억 달러, '22년 854십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으며, 전체 ESG 채권 중 녹색채권의 발행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 '22년 발행 규모가 감소한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체 채권시장이 부진했던 것에 기인

〈그림 3〉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 추이 〈그림 4〉 채권유형별 발행 비중('22년)



자료 : S&P Global(2023)



자료 : S&P Global(2023)

- 지속가능 대출 상품으로는 녹색대출(Green Loan), 사회적대출(Social Loan) 외에도 대출금리를 차입기관의 지속가능성 경영목표 이행여부에 연계한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시장이 크게 성장 중
- BBVA에 따르면¹⁹⁾, 전세계 지속가능연계대출 차입 규모는 '17년 8십억 유로에서 '22년 726십억 유로로 급증했으며, '22년 녹색대출 규모 대비 4.8배 수준
- 지속가능연계대출은 녹색대출, 사회적대출의 자금사용처가 관련 프로젝트에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자금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
- 한편 기업의 자체적인 ESG 및 저탄소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천, ESG 공시 대비 등을 위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내 관련 조직 및 서비스가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추세

19) BBVA(2023), "Green & Sustainability-Linked Loan Newsletter"

Ⅲ. 지속가능경영 사례 – BNP Paribas

1. 기관 개요

□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65개국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대형 금융그룹

-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은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중이며, ‘22년 수립한 ‘GTS 2025’ 전략에 탄소중립, 기후관련 이슈를 핵심사항으로 포함
- ‘GTS(Growth, Technology, Sustainability) 2025’는 ① 지속가능한 저축, 투자 및 파이낸싱, ② 순환경제, ③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④ 자연자본 및 생물 다양성, ⑤ 사회통합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략 계획

〈표 7〉 BNP Paribas Group 개요¹⁾

설립연도	2000년 ²⁾	총자산	2,634십억 유로
직원수	193,000명	총수익	50,419백만 유로
영업국가/지역	65개	당기순이익	10,196백만 유로

주 : 1) 각 지표는 2022년말 기준

2) 파리국립은행(Banque Nationale de Paris, BNP)와 파리바(Paribas)의 합병연도이며, BNP의 설립연도는 1966년

자료 : BNP Paribas(2023),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and Annual Financial Report 2022”

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공시

□ BNP Paribas는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²⁰⁾ 보고서를 통해 공개

- Scope 3 배출량은 15개 측정범위²¹⁾ 중 제품·서비스 구매, 사업장 발생 폐기물, 출장 등 3개 분야를 측정 중이며, 금융배출량은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

20)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는 ‘00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글로벌 환경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세계 680개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에게 환경 이슈 대응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분석결과를 공개하는 활동을 영위

〈표 8〉 BNP Paribas의 Scope 1~3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 tCO₂e)

구분		2018	2019	2020	2021
Scope 1 (직접배출량)		62,148	61,187	49,041	50,144
Scope 2 ^{주)} (간접배출량)	지역기반	288,902	280,789	233,831	201,473
	시장기반	183,092	159,171	100,403	99,087
Scope 3 (기타 간접배출량)	총배출량	-	138,547	76,831	43,786
	제품·서비스 구매	-	15,640	10,258	8,605
	사업장 발생 폐기물	-	3,852	2,106	2,368
	출장	-	119,055	64,467	32,813

주 : 지역기반(location-based)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전력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며, 시장기반(market-based)은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전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집계

자료 : BNP Paribas(2023), "2022 Climate Change Information Request, Carbon Disclosure Project"

-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총 종업원수 대비 배출량(집약도)을 기준으로 설정 및 관리
 - '25년까지 집약도를 기준치인 '12년 3.21 tCO₂e/FTE²²⁾에서 1.85 tCO₂e/FTE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21~'22년 집약도가 '25년 목표치보다 낮은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 출장 등이 위축되며 Scope 3 배출량이 크게 낮았던 것에 주로 기인

〈표 9〉 BNP Paribas 온실가스 집약도 및 목표

(단위 : tCO₂e/FTE)

	2012	2018	2019	2020	2021	2022	2025 목표
배출량 집약도	3.21	2.45	2.32	1.85	1.50	1.65	<1.85

주 : 집약도는 Full-time 종업원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

자료 : BNP Paribas(2023), "2022 Climate Report"

21) Upstream Scope 3 측정범위 : ① 제품·서비스 구매, ② 자본재, ③ 에너지·연료 관련 활동, ④ 원자재 공급자 등의 운송·유통, ⑤ 사업장 발생 폐기물, ⑥ 출장, ⑦ 직원 통근, ⑧ 임차자산
Downstream Scope 3 측정범위 : ⑨ 소비자 등에게 유통, ⑩ 판매제품 가공, ⑪ 판매제품 사용, ⑫ 판매제품 폐기, ⑬ 임대자산, ⑭ 프랜차이즈, ⑮ 투자

22) Full-Time Employee

□ BNP Paribas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외에 고탄소 배출 산업에 대한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및 경로를 설정하고 관리 중

- '21년 NZBA²³⁾ 가입에 따라 오일 및 가스, 발전, 자동차 등 3개의 고탄소 배출 산업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감축 목표 및 경로를 설정
 - 각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25년 또는 '30년(오일 및 가스)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 집약도를 측정하여 관리
 - 각 산업 분야에 대한 목표 설정은 ① 전문가 및 문헌 검토 → ② 데이터(재무 및 배출량) 수집 → ③ 금융상품 범주(대출 및 우발채무 등) 설정 → ④ 벤치마크 시나리오 선택 → ⑤ 측정 방법론 디자인 → ⑥ 목표 설정의 순서로 진행

〈표 10〉 오일 및 가스, 발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부 목표

(단위 : %)

산업 분야	KPI		2020	2021	2022	2025 목표	2030 목표
오일 및 가스	금융지원 축소 ^{주)}	오일			△15	△25	△80
		가스					△30
		오일 및 가스			△12	△12	
발전	발전 포트폴리오 내 해당부문 지원 비중	석탄	10	8	7	<5	
		재생에너지	57	62	60	>66	
자동차	자동차 포트폴리오 내 전기차 지원 비중	전기차	4	7	14	>25	

주 : '22년, '25년 목표는 '20년말 대비, '30년 목표는 '22.9월말 대비

자료 : BNP Paribas(2023), "2022 Climate Report"

〈표 11〉 오일 및 가스, 발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 집약도 감축 목표

산업 분야	단위	2020	2021	2022	2025 목표	'20~'25 감축 비율
오일 및 가스	gCO ₂ e/MJ	68	-	67	<61	>10%
전력	gCO ₂ /kWh	208	182	179	<146	>30%
자동차	gCO ₂ /km WLTP	183	176	167	<137	>25%

자료 : BNP Paribas(2023), "2022 Climate Report"

23) Net-Zero Banking Alliance : '50년까지 보유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은행 연합체로 UN 주도하에 '21.4월 출범하여 '23.7월 현재 133개 은행이 서명기관으로 참여

- '22년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3개의 고탄소 배출 산업에 대하여 추가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 IEA의 2050 넷제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집약도 기준 2030 달성목표를 설정
 -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IEA 시나리오 대비 비슷하거나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시멘트의 경우 BNP Paribas의 시멘트 부문 포함 범주가 다소 넓어 IEA 시나리오 대비 집약도 달성 목표가 높게 설정

〈표 12〉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 탄소배출 감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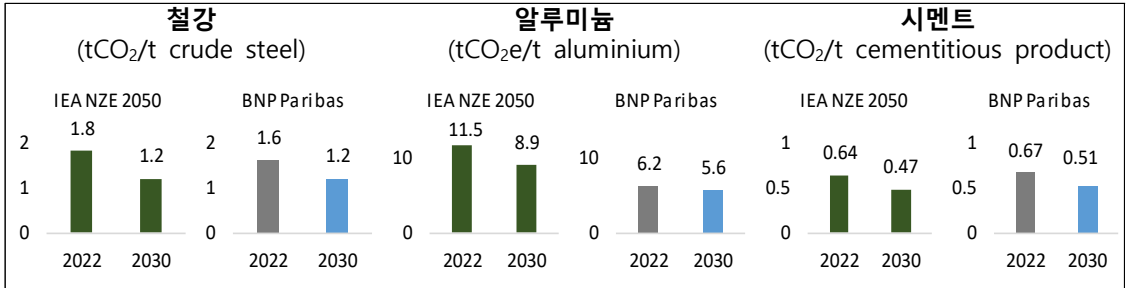
산업 분야	범주	지표	시나리오	기준 지표 (연도)	2030 목표
철강	Scope 1, 2	집약도 (tCO ₂ /t crude steel)	IEA NZE 2050 시나리오 ¹⁾	1.6 ('22년)	1.2 (△25%)
알루미늄	Scope 1, 2	집약도 (tCO ₂ e/t aluminium)	IAI 1.5°C 시나리오 ²⁾	6.2 ('22년)	5.6 (△10%)
시멘트	Scope 1, 2	집약도 (tCO ₂ /t cementitious product)	IEA NZE 2050 시나리오	0.67 ('21년)	0.51 (△24%)

주 : 1) IEA NZE 2050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2) International Aluminum Institute의 시나리오로 IEA NZE 시나리오를 따름

자료 : BNP Paribas(2023), "2022 Climate Report"

〈그림 5〉 IEA NZE 2050 시나리오와 BNP Paribas의 집약도 달성 목표 비교



자료 : BNP Paribas(2023), "2022 Climate Report"

- 고탄소 배출 산업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감축 목표 설정과 더불어 탄소 포집 등 고객의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리스크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
 - 고객의 지속가능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60명의 지속가능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Low Carbon Transition Group'을 구성
 - '22년 고탄소 배출 부문의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개발, 포트폴리오 감축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C2A(Climate Analytics and Alignment) 팀을 신설

3. 기후리스크 관리

□ BNP Paribas는 그룹 전체 리스크관리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

- '10년부터 기존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에 기후 리스크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
 - 리스크성향체계(Risk appetite framework), 리스크의 식별 및 측정, 리스크 완화 및 통제, 리스크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 전반에 걸쳐 기후 리스크 요인을 반영
- BNP Paribas의 리스크 식별 및 분석 체계인 'Risk ID'에 기후 관련 리스크를 포함
 -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 108개 중 ESG와 관련된 리스크요인을 13개로 파악하고, 이중 기후변화와 관련된 7개 리스크 요인을 분류
 - 기후변화 관련 물리적 리스크 요인(①급성, ②만성), 기후변화 관련 이행 리스크 요인(③정책변화, ④기술변화, ⑤행동변화), ⑥지배구조 리스크 요인(부적합한 E&S 리스크관리), ⑦ESG 의무이행 관련 리스크요인
 - 기후 관련 리스크 요인이 사업 및 전략 리스크, 신용 리스크, 운영 및 평판 리스크 등을 통해 그룹 전체 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경로 및 중요도를 분석
- ECB 등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당국 등이 수행하는 기후리스크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동시에 금융부문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논의에도 참여
 - ECB는 '22.1월 기후리스크로부터 야기되는 재정적, 경제적 충격에 대한 은행들의 준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후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 은행 내부적으로도 리스크 분석 모델에 기후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자본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CAAP²⁴)에 기후리스크를 반영
 -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IEA와 NFG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ector) 등 공인된 기관의 시나리오를 활용

□ 물리적 기후리스크의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경제적 분석 실시

- '21년 기업대출, 모기지 등 신용공여 익스포저 샘플을 대상으로 물리적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

24)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 2100년까지 RCP8.5, RCP2.6²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홍수, 토양 침하, 이상 고온 등 광범위한 기후리스크 요인에 따른 자산 손실, 사업 중단 영향을 평가
- (모기지대출) 3개국(프랑스, 벨기에, 미국) 25,000개의 개별 property를 대상으로 2021~2100년 중 홍수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실을 추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표시한 'Risk Map'을 작성
- (기업대출) 64개국 1,000개 거래상대방(대출 익스포저 1억 유로 이상)을 대상으로 물리적 기후리스크에 따른 연간 손실을 추정
 - 고온현상은 사업중단 위험, 홍수는 자산손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미국 지역 Risk Map



자료 : BNP Paribas(2022), "2021 TCFD Report"

□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반영한 신용공여 절차 진행

- '21년부터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후 및 환경 실사를 강화
 - 고객 대상 ESG 평가는 환경(기후, 오염 및 생물 다양성), 사회(직장에서의 인권, 지역사회 및 고객의 인권), 지배구조(기업 윤리 포함) 등에 대한 설문 조사로 실시
 - 신용공여 절차는 ① 신규대출 신청 → ② ESG 평가 및 거래 구조화 → ③ ESG 평가를 반영한 신용 제안 → ④ 신용위원회 상정 및 결정 → ⑤ 대출 실행의 순서로 진행
 - '22년까지 대기업 고객 만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실시했으나, 향후 모든 기업 고객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도 실시 예정

25)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로 숫자는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흡수에너지양을 의미, RCP8.5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 RCP2.6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가정

4. ESG 금융 활동 및 실적

□ BNP Paribas는 각 부문 및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저탄소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

○ 그룹 전체의 지속가능 전략인 'GTS 2025'에 따라 지속가능 대출, 채권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

- 에너지 전환과 UN의 SDGs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를 중점 지원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교육, 건강, 수자원관리, 대중교통, 신재생에너지 등
- 지속가능연계대출·채권, ESG 관련 인덱스 및 ETF 등의 금융상품 제공

○ 기업·개인고객 대상 저탄소경제 전환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 기업고객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소비 절감 지원, Arval & BNP Paribas Leasing Solutions를 통한 친환경 차량 전환 지원
- 개인고객 대상으로는 일상에서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서비스 및 우대금리 제공, 주거지 에너지개선자금 지원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금융 부문에서 재활용품 수거관리 디지털 플랫폼인 Evollis에 지분 투자를 했으며, BNP Paribas Cardif 생명은 리퍼(Refurnish) 휴대폰, 태블릿, 랩탑 관련 보험 출시

〈표 13〉 BNP Paribas의 지속가능 금융지원 목표 및 실적

(단위 : 십억 유로)

구분	'25년 목표	'22년말 실적
① 기업, 기관 및 개인 대상 지속가능대출	150	87
② 고객 대상 지속가능채권 발행	200	32
③ 지속가능투자(운용자산(AUM) 기준)	300	223
④ 고객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	200	44
⑤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 지원	4	1.8

주 : '25년 목표는 ③지속가능투자를 제외하고는 '22~'25년 누적 지원금액 목표

자료 : BNP Paribas(2023), "2022 Integrated Report"

IV. 지속가능경영 사례 – EIB

1. 기관 개요

□ EU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58년 설립된 정책금융기관

- EIB Group은 EU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출,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EIB(European Investment Bank)'와 벤처 캐피탈, 마이크로파이낸싱, 보증을 통해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자회사인 'EIF(European Investment Fund)'로 구성

〈표 14〉 EIB 개요^{주)}

설립연도	1958년	금융지원 규모	65십억 유로
직원수	4,475명	총자산	545십억 유로
영업국가/지역	160개	총이익(profit)	2,366백만 유로

주 : 2022년말 기준

자료 : EIB(2023), "Financial Report 2022"

- '20.11월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EU의 은행(EU bank supporting climate)'에서 'EU의 기후은행(EU Climate Bank)'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후은행 역할 수행을 위한 단기 이행계획인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를 발표
 -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에서는 ① '25년 또는 그 이후까지 기후·환경 관련 프로젝트 대상 금융지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② '21~30년 기후·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누적 1조 유로 이상 투자, ③ 모든 금융활동을 파리협약의 목표·원칙에 부합시킬 것을 목표로 함

2.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 '07년부터 EIB 그룹 자체 Scope 1~3 배출량을 측정 및 공개 중

- '07년부터 자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매년 공개 중이며, 산림파괴 방지 등 프로젝트로부터 창출된 탄소배출량 상쇄권을 구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 상쇄

- Scope 3 배출량이 '22년 기준 총 배출량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 기차 이용 등 출장으로 인한 배출량이 전체 Scope 3 배출량의 75%를 차지
- EIB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 배출량은 고탄소 배출 프로젝트 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측정 및 공개
- '2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8년 대비 12.4% 감축할 계획이며, 넷제로 달성 시점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표 15〉 EIB의 Scope 1~3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단위 : tCO₂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cope 1 (직접배출량)	75	78	42	41	24
Scope 2 (간접배출량)	4,886	4,148	3,420	3,232	2,154
Scope 3 ¹⁾ (기타 간접배출량)	22,319	21,476	6,025	4,434	15,174
총 배출량	27,280	25,702	9,487	7,708	17,353
순 배출량²⁾	22,415	21,434	5,958	4,356	15,329

주 : 1) Scope 3 산출범위는 출장, EIB 건물간 이동, 택배, 물, 폐기물, 종이 소비, 데이터센터, 임직원 통근 및 재택 등을 포함

2) 녹색전력요금(green tariff), 바이오매스 증기 구입 등에 따른 감축분이 반영된 배출량

자료 : EIB(2023), "TCFD Report 2022"

○ 온실가스 집약도는 총 종업원수 대비 순배출량으로 산출 및 관리

〈표 16〉 EIB 온실가스 집약도 추이

(단위 : tCO₂e/FTE)

	2012	2018	2019	2020	2021	2022
순배출량(A)	16,441	22,415	21,434	5,958	4,356	15,329
직원수(B)	2,185	3,896	3,964	4,092	4,412	4,475
배출량 집약도 (C=A÷B)	7.52	5.75	5.41	1.46	0.99	3.43

자료 : EIB(2023), "TCFD Report 2022"

□ EIB는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고탄소 배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²⁶⁾을 측정 및 공개

- 연간 탄소배출량이 절대배출량 또는 상대배출량²⁷⁾ 기준으로 2만 tCO₂e 이상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측정
 - '22년에는 동 기준을 넘어서는 91개 고탄소 배출 프로젝트(EIB 승인액 160억 유로 규모)를 대상으로 탄소발자국을 측정
 - 총 탄소배출량은 1.6백만 tCO₂e, 프로젝트 실행으로 감축된 배출량(상대 배출량)은 4.6백만 tCO₂e로 측정됨
 - 측정 대상 프로젝트는 에너지 발전 부문 외에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성, 수송, 산업, 수자원 및 폐기물, 농업 및 임업 등의 분야를 포함

〈표 17〉 EIB 지원 프로젝트의 탄소발자국 추이

구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프로젝트 수 (개)	68	96	99	86	91
	총 EIB 승인금액 (십억유로)	9.5	13.6	14.4	15.6	16
	절대배출량 (백만 tCO ₂ e)	2.2	3.9	5.2	2.3	1.6
	상대배출량 (백만 tCO ₂ e)	△3.5	△2.9	△3.7	△2.3	△4.6
부문별 절대배출량 (백만 tCO ₂ e)	산업	0.3	1.0	2.1	1.1	0.4
	에너지	0.7	1.2	1.9	0.4	0.3
	모빌리티	0.7	1.5	0.7	0.7	0.5
	기타	0.6	0.3	0.5	0.2	0.5
부문별 상대배출량 (백만 tCO ₂ e)	산업	0.0	△0.5	△0.1	△0.1	△0.1
	에너지	△2.9	△1.9	△2.8	△1.7	△3.9
	모빌리티	△0.1	0.1	△0.2	△0.3	△0.2
	기타	△0.4	△0.6	△0.6	△0.2	△0.4

주 : 기타는 수자원, 하수, 임업, 식료품 및 농업 부문을 포함

자료 : EIB(2023), "TCFD Report 2022"

26) 제품·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직간접 배출량의 총량을 의미

27) 프로젝트 실행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분

상대배출량 = 프로젝트 실행시 탄소배출량 - 프로젝트 미실행시 탄소배출량 또는 기준 배출량

3. 기후리스크 관리

□ EIB는 그룹 전체의 리스크관리 체계에 기후관련 리스크를 통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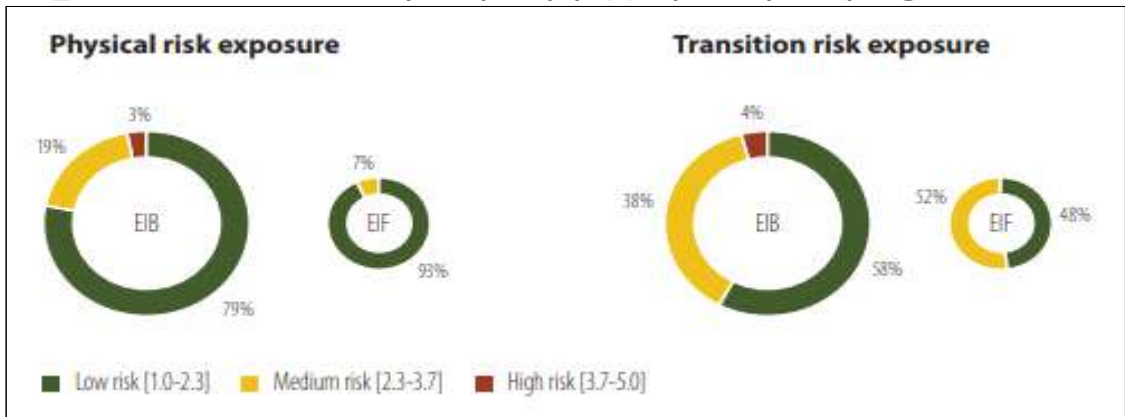
- 리스크성향체계(Risk appetite framework), 자본 및 유동성 적정성 평가(Capital and liquidity adequacy assessment), 리스크 보고에 기후리스크를 포함
 -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CAAP) 및 유동성 적정성 평가 프로세스(ILAAP, Internal Liquidity Adequacy Assessment Process)에 기후리스크 식별,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을 포함
 - 매월 그룹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후리스크 익스포저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기후리스크 보고서를 반기마다 작성

□ 기후관련 리스크는 개별 프로젝트, 거래상대방, 포트폴리오 단위로 평가하고 관리

- 저탄소 프로젝트 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일련의 지속가능성 실사 절차를 진행
 - 녹색 전환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원칙을 적용
 - '19년 'Energy Lending Policy'를 통해 화석연료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중단
 - '22년 모빌리티 시스템의 안정성, 접근성, 녹색성,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Transport Lending Policy'를 수립
 - '90년대부터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시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에 따른 잠재비용(shadow cost of carbon)을 반영
 - 자체 모델링을 통해 1톤의 CO₂e 배출에 따른 잠재비용이 '20년 80유로 수준에서 '30년 250유로, '50년 800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9년부터는 개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후리스크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진행
 - ① 국가별·산업별 물리적 기후리스크 데이터, 기후변화 예상경로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스크리닝 → ② 高리스크 프로젝트로 분류될 경우 기후리스크·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고객 앞 적응방안 마련을 요청 → ③ 동 절차 이후에도 잔존하는 잔여리스크를 프로젝트별로 산출

- 거래상대방 및 포트폴리오의 기후리스크 익스포저를 식별 및 측정하기 위해 '20.7월부터 기후리스크 스크리닝 도구를 활용 중
 - ① 고객이 속한 산업·국가의 물리적·이행리스크를 산출 → ② 해당 고객의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취약도 등을 반영하여 점수 조정 → ③ 고객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역량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최종 점수를 0(낮은 위험)에서 5(높은 위험)까지 5점 척도로 산출한 후, 3가지 기후위험(low, medium, high)으로 분류
 - 거래상대방(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 및 지원방식(프로젝트 파이낸스, 지분투자)에 따라 맞춤형 평가를 실시
 - '22년 EIB 그룹의 전체 포트폴리오 6,328억 유로 중 89%를 대상으로 기후리스크 스크리닝 도구를 적용하였으며, 리스크가 中 이상인 EIB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물리적 리스크의 경우 22%, 이행리스크는 42%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22년 EIB와 EIF의 물리적·이행 리스크 익스포저 현황



자료 : EIB(2023), "TCFD Report 2022"

- '22.1월에는 PATH(Paris Alignment for Counterparties Framework)를 발표, 기후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 고기후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된 기업과 금융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탈탄소화 및 기후회복력 강화 계획 수립을 요구
 - 금융기관 고객의 경우 TCFD에 기반한 기후 정책의 개발·공개 요구

4. ESG 금융 활동 및 실적

□ EIB Group은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금융 지원을 확대

- '20.11월 발표한 '기후은행 로드맵 2021-2025'에서는 ① '25년까지 기후·환경 프로젝트 앞 금융지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② '30년까지 기후대응 및 환경 부문에 누적 1조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
 - '21년에는 'EIB 기후적응계획'을 수립하고 ③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25년까지 15%까지 늘리는 목표를 추가로 설정
 - EIB 그룹의 상위 계획과는 별도로 ④ EIF는 기후·환경 분야 금융지원 비중을 '23년 22%, '24년 25%까지 확대할 계획

〈표 18〉 EIB Group의 기후관련 금융지원 목표 및 실적

구분	목표	실적	
		'21	'22
① EIB의 기후·환경 프로젝트 앞 금융지원 비중	'25년까지 50% 이상	51%	58%
② 기후·환경 분야 누적 금융지원 규모	'30년까지 1조 유로	75십억 유로	222십억 유로
③ 기후적응 분야 금융지원 비중	'25년까지 15%	4.9%	5.4%
④ EIF의 기후·환경 프로젝트 앞 금융지원 비중	'23년 22%, '24년 25%	13%	21%

주 : 연간 실적은 누적 기준

자료 : EIB(2023), "2022 Sustainability Report"

- '07년 전세계 최초로 녹색채권('기후인식채권²⁸⁾)을 발행하는 등 지속가능채권 발행 분야 선도
 - '18년에는 환경·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보유한 '지속가능인식채권'을 최초 발행
 - '기후인식채권 관리체계'와 '지속가능인식채권²⁹⁾ 관리체계' 하에,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조달자금의 투입 대상 프로젝트를 정의
- 기후변화 적응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 확대를 위하여, 관련 프로젝트에 기술적·재정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EIB ADAPT'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ESG 자문 서비스도 제공

28) Climate Awareness Bond : 기후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 부문에 자금을 투입하고자 발행

29) Sustainability Awareness Bond : 기후변화 완화 이외에 환경적 목적과 수자원 접근성,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등 사회적 목적에 자금을 투입하고자 발행

V. 시사점

-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정책 및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파리협약 발효('21년)에 따른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으로 국가, 산업, 기업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또한 증대
 - 우리나라는 '23.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³⁰⁾ 달성을 위한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조정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
 -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저탄소 산업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
 - 신규로 발표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기후 및 지속가능 관련 국제사회 및 각국의 정책, 규제 사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 SEC, EU 등에서 '24년 이후 의무화될 예정인 지속가능성 또는 기후관련 공시가 동 지역에 상장된 해외기업에도 적용
 - 우리나라에서도 '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 '30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ESG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
- 금융기관의 기후 및 ESG 리스크 관리는 각 기관의 관리 역량 및 인프라 등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후 및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되, 정부정책, 각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시기, 구현 수준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시나리오 기반 이행 리스크 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조기 착수 필요

30) '30년 '18년 대비 40% 감축('18년 727.6 백만톤 CO₂e → 436.6 백만톤 CO₂e)

- BNP Paribas, EIB는 그룹 전체의 리스크관리 체계에 기후관련 리스크를 통합 관리 중이며, 기관 자체의 Scope 1~3 배출량 산출 외에 부문·산업별 금융 배출량도 산출 중
- 기후 관련 시나리오 설정 및 리스크 산출 모델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동시에 거시·기업 데이터 적용 등을 통해 기후 리스크 지식을 내재화할 필요성

□ 산업·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지속가능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 ESG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의 발행·주선·투자 지원,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컨설팅 수요 및 녹색대출·지속가능연계대출 수요 등에 대응
- 대상 사업, 산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지원형태에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대응하고, 필요시 신규상품 개발, 상품별 대상 세분화 및 명확화 등 추진
- 금융기관의 종합적인 지속가능금융 전략 수립 후 동 전략 하에 세부계획 마련
- BNP Paribas는 'GTS 2025', EIB는 '기후금융 로드맵 2021-2025'라는 그룹 전체의 지속가능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계획에 따라 분야별 금융지원 목표를 수립·관리

□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체계 마련 및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

- 금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전행적 일체감 도모를 위해 이사회 또는 별도 ESG 위원회 설치를 통한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체계 또는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
- 기획재정부는 '22.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위원회 설치를 권고
- 또한 지배구조 및 전략, 리스크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등 ESG 활동별로 금융기관 내부 조직의 R&R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

참고문헌

[국문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3),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금융위원회(2022),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회계 기준원(2023),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방안”
- 기획재정부(2022),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 심수연(2023), “기후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응 방향”, 자본시장포커스 2023-05호, 자본시장연구원
- 윤재숙(2023), “글로벌 ESG 공시 논의동향 및 시사점”, 한국거래소
- 이상호(2023),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자본시장연구원
- 한국은행(2021),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조사통계월보 제75권 제12호
- 한국회계기준원(2023), “IFRS S1 및 S2에 대한 프로젝트 요약”

[영문자료]

- BBVA(2023), “Green & Sustainability-Linked Loan Newsletter”
- BNP Paribas(2022), “2021 TCFD Report”
- _____ (2023), “2022 Climate Report”
- _____ (2023), “2022 Integrated Report”
- _____ (2023), “Climate Change Information Request, Carbon Disclosure Project”
- _____ (2023), “Universal Registration Document and Annual Financial Report”
- EIB(2023), “2022 Sustainability Report”
- ___(2023), “Financial Report 2022”
- ___(2023), “TCFD Report 2022”
- IFRS(2023), “IFRS Foundation welcomes culmination of TCFD work and transfer of TCFD monitoring responsibilities to ISSB from 2024”

PCAF(2022), “The Global GHG Accounting & Reporting Standard Part A :
Financed Emissions, Second Edition”

S&P Global(2023), “Sustainable bond issuance will return to growth in 2023”

UNEP(2016),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87), “Our Common Future”